

남자 대학생의 친부에 대한 친밀도와 부성역할 지각 및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간의 상관관계¹⁾

Correlations among mal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the degree
of closeness to their fathers, their fathers' paternal role and their
own paternal role in the future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정교육전공

李恒順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柳岸津

Major in Home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Hang Soon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 : Yoo, An Jin

〈목 차〉

- | | |
|---------------------|---------------|
| I. 서론 | V. 연구 결과 및 해석 |
| II. 관련 연구의 고찰 | VI. 결론 및 해석 |
| III. 연구 문제 및 변수의 정의 | 참고문헌 |
| IV. 연구 방법 및 절차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need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son by investigating correlations among mal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the degree of closeness to their fathers, their fathers' paternal role and their own paternal role in the futu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74 male college students (sophomores, juniors and seniors) from Seoul and Daegu. The questionnaire, the means of this research, is composed of classified questions on related studies and on the researches of reference literatures. Statistical methods appli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ies,

1) 1996학년도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mean, standard deviation, Pearson's correlation.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When a son perceives that he is on intimate terms with his father, he perceives that his father performs paternal role well. Intimate relation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can be considered essential to good performance of paternal role.

2) When a son perceives that he is on intimate terms with his father, he believes that he will perform his own paternal role well in the future. That is, the son seems to accept his future paternal role positively as he feels close to his father.

3) Male college students, who perceive their fathers' paternal role is properly performed, tend to believe they will perform their own paternal role well in the future. Judging from the relation between fathers' performance of paternal role and sons' perception of their future paternal role, we can say good performance of paternal role is important in building up sons' affirmative perception of paternal role.

I. 서 론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부모상은 '嚴父慈母'라는 말로 표현된다.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모는 보다 자애로운 존재로서 감정에 의존하는 육아태도를 취해온 반면, 아버지는 보다 엄격하고 원칙적이어서 훈육의 담당자역을 해왔다. 또한 모는 아버지가 집안 식구들의 지배, 통솔 및 보호적인 위치에 있음을 은연중에 가르침으로써 전통사회에서 아버지는 명실상부 가정의 훈육자 역할을 해왔다. 특히 아버지는 남아에게 장차 한 가정의 가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알려주고 남아가 동일시할 수 있는 본보기 역할을 하였다(유안진, 1986).

그러나 산업사회속에서 부성이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에만 치중하여 자녀 양육 및 교육의 문제에는 소홀하게 대하여 오히려 가정에서의 부성실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더우기 모의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부성역할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부성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연구하게 된 것은 외국에서는 1960년대이며, 우

리나라의 경우는 70년대 이후이다(이희자, 정영숙, 1979). 부성에 관한 외국의 연구경향을 보면 ①자녀의 인성, 성격적 적응, 도덕성, 사회성, 인지발달 등과 관련한 아버지의 영향 연구 ②아버지의 양육태도나 역할에 관한 자녀의 지각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Erikson이 지적한 것처럼 자기 주체성이 확립되고 원만한 성격 발달도 완성되어 가정을 이룩하여 한 이성과 애정과 신임을 주고 받음으로써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청년기(유영주, 1980) 중에서도 결혼적령기에 가까운 남자 대학생의 미래 자기 부성역할 지각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부전자전', '왕대끝에 왕대나고 갈대끝에 갈대난다', '부모팔자 반팔자' 등의 교훈적 속언은 전통가족의 기능에서 자녀의 사회화가 얼마나 강조되었던가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유안진, 1980). 이것은 부모의 특성이 자녀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는 전수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같이 부모의 특성이 전수되는 것을 부모에 의한 자녀의 사회화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으나, 아버지가 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큼을 볼 때 '부성역할의 전수'라는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현재 아버지의 상은 크게 두가지로 양분된다. 하

나는 결코 기준을 양보하지 않는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자녀를 감동시키는 사랑을 가진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두 주장에서 강조하는 아버지의 상은 모두,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아버지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며, 엄격한 아버지나 자애로운 아버지나 모두 자녀들과 대화를 통한 설득의 과정을 필요로 하며, 자녀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과 자녀와의 대화를 통한 친밀한 관계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父子之間은 天倫'이라고 해서 부자지간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으로 끊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라는 말이 있다. 또한 삼강오륜중에 父子有親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父子간의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친부와의 친밀한 정도가 자의 친부에 대한 부성역할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의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한다. 또한 '부성역할의 전수'라는 시각에서, 친부의 부성역할 지각과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과의 관계도 아울러 살펴보려고 한다.

II. 관련연구의 고찰

1. 친밀도 지각과 친부의 부성역할 지각의 관계

친부에 대한 친밀도 지각과 친부의 부성역할 지각의 관계에 관련된 연구로, 부성역할에서父子간의 친밀한 관계의 당위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연구들로는 유영주(1984), Ginotte(1961), Cole (1948), 신연식(1982), 유영주(1980), 이은화, 김태련(1972), 김옥엽(1982) 그리고 이순렬(1986)의 연구 등이 있다. 이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父는 자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존중해 주어야 함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유영주(1984)는 자녀가 청년기가 되면 부모는 자녀를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권위적 태도를 버리고 친구와 같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즉 내면적으로는 보호, 지도의 태도를 가지면서, 대화를 통한 일상생활의 관계에서는 사고와 지식의 범위를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교통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Ginott(1961)는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부모자신이 자존심을 갖는 것과 같이 자녀들의 자존심도 존중해 주고, 충고나 지시를 할 때는 미리 그 말에 대한 부모자신의 충분한 이해 즉 자녀의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이정숙, 1979에서 재인용).

Cole(1948)은 청년을 위한 바람직한 가정의 특징으로, 부모가 친구가 되고 모범이 되는 것을 들고 있다(이은순, 1974에서 재인용).

신연식(1982)은 훌륭한 아버지의 역할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즉 자녀와 자주 대화하고 놀아주는 등 시간을 제공하는 일과 자녀들의 감정의 움직임과 요구에 민감할 뿐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영주(1980)는 청년기 발달과업을 고려한 아버지의 역할로 특히 주의할 점은, 지나친 관심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지도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요구할 때 '충고자'가 되며,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공평한 '경청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은화와 김태련(1972)은 유아기 아동을 기르는 부모의 이상적 역할에 대한 태도 및 신념과 어머니들이 말하는 부모의 이상적 역할을 연구하였는데, 어머니가 기대하는 아버지의 역할은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 특히 물질적 환경 조성과 유아와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져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어 주기를 희망하였다.

둘째,父子간의 밀도있는 심리적 관계가 중요함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옥엽(1982)에 의하면, 어버이와 자녀관계는 단순한 생리적인 관계일 뿐 아니라 사랑이 매체가 되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관계가 될 때 훗날 대인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는 물리적 접촉

시간의 양보다 밀도있는 심리적 접촉관계가 더욱 중요하며, 아버지가 온화하고 이해심이 많고 양육적인 태도를 보일 때 자녀들의 성역할 학습 및 인지능력, 성취동기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순렬, 1986).

이상의 연구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성역할에서父子간의 친밀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아, 친부에 대한 친밀도 지각과 친부의 부성역할 지각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2. 친밀도 지각과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의 관계

자가 지각하는 미래자기 부성역할이란 자의 인성, 성유형 등 개인적인 특성이 복합된 총체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父와의 친밀한 관계가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성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김광웅(1978)은父子관계가 친밀하고 대화를 나누는 남자는父子관계가 그렇지 못한 남자에 비하여 지배성, 안정성, 사려성, 사회성 등의 인성특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성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Fisher(1976)는 부모 중 아버지는 아들에게 동일시 대상으로 성유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청년기 자녀와 아버지가 대화할 시간이 없고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할 경우 자녀들에게서 일어나는 문제점으로 아들에게 아버지를 동일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고(이정숙, 1979에서 재인용)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父와의 친밀한 관계가 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父에 대한 친밀도 지각과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의 父에 대한 친밀도 지각과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 보려고 한다.

3. 친부의 부성역할 지각과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의 관계

Santrock(1981)은 부모와 청년기 자녀와의 관계를 호혜적인 사회화로 파악하여 청년기 자녀는 부모에 의해 형성되며 부모는 청년기 자녀의 적절한 모델이 된다고 했다. 또한 실제 아버지 양육행동 또는 훈육방법의 세대간의 연관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최규순, 1992; 김재은, 1967).

아버지 양육행동의 세대간의 변화 그리고 한 가계 안에서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 최규순(1992)은 두 세대간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낮은 정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했다.

김재은(1967)은 가정에서의 훈육방법에 대한 조부모세대와 부모세대간의 개념차이를 서울시내의 중 및 중상류계층 가정 부모의 권위의 철학, 부모의 제한, 벌의 경중, 친숙도, 상대적 책임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부모가 받은 훈육과 자녀에게 주는 훈육간에는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자 대학생의 부성역할 지각과 남자 대학생이 장차 아버지가 되었을 때의 부성역할 지각 즉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Ⅲ. 연구 문제 및 변수의 정의

1. 연구 문제

1) 남자 대학생의 친부에 대한 친밀도 지각은 친부의 부성역할 지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있는가?

2) 남자 대학생의 친부에 대한 친밀도 지각과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있는가?

3) 남자 대학생의 친부의 부성역할 지각과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있는가?

2. 변수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밀도 지각

친밀도에 관한 연구(Kelly et al, 1983; Chelune et al, 1984; Waring et al, 1980)를 기초로, 친밀도란 서로의 교제가 깊은 정도로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밀접한 관계를 말하며, 한 개인으로서 이해하고 신뢰하며, 애정적이며 존중하는 관계를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친밀도의 하위영역은 Walker와 Tompson(1983), Bengston과 Cutler(1976), Troll과 Smith(1976) 그리고 이주리(1984)의 친밀도를 참고로하여 취향, 좋아함(애정), 관심(자상), 의사소통, 이해(공감), 솔직의 여섯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2) 부성역할 지각

① 친부의 부성역할 지각 ; 친부의 부성역할 지각이란 친부에 대해 자기가 지각하는 부성역할로 정의하며, 유안진(1989)의 부모의 역할을 기초로 양육자 및 부양자 역할, 기본적 훈육 및 가치관 형성의 역할, 의는 상대자의 역할, 모범을 통한 가정과 사회의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 가정의 화목을 조성하는 역할의 다섯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②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 ;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이란 자기가 장차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자기가 수행하리라고 지각하는 부성역할로 정의하며, 이것은 가치관을 포함한 개념이다. 그 하위영역은 친부의 부성역할 지각의 하위영역과 같다.

IV. 연구 방법 및 절차

1. 조사 대상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 특별시와 대구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의 친부가 있는 남자 대학생 2·4학년이다. 우선 조사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선정한 이

유는, 연령분포가 대략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수 있는 20대로서, 豫備父로서 미래 아버지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연령이라는 점과 조사 대상의 학력 변수를 통제하여 살펴 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1학년을 제외한 이유는, 1학년은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실질적인 대학 생활은 2학년 부터 시작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사 지역과 조사 대상은 서울, 대구지역의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대학 8개대학으로서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단대별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임의표집하였다. 구체적으로, 대구지역 남자 대학생 2·4학년 154명과 서울지역 남자 대학생 320명으로 총 474명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 출신지별 및 소속 단대별 분포와 조사 대상자 父의 연령, 교육 수준 및 직업의 분포는 <표 IV-1>, <표 IV-2>와 같다.

2. 조사 도구의 구성

관련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구체적인 문항을 작성한 후, 지도교수 및 아동학 전공자 2인의 검토를 거쳐, 남자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용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질문지는 남자 대학생의 1) 친부의 부성역할 수행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13개 문항 2) 미래자기 부성역할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13개 문항 3) 친부에 대한 친밀도를 측정하는 10개 문항의 3가지 척도로 구성하였다.

3. 조사 절차

본조사에 앞서 1994년 5월 24일 부터 25일까지 2일에 걸쳐 남자 대학생 2, 3, 4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조사용 질문지를 작성한 후 1994년 5월 30일 부터 6월 12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조사원에게 조사실시요령을 숙지시킨 후 조사원 3명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

〈표 IV-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특 성	내 용	빈 도(%)
연 령	19세	4 (0.8)
	20세	41 (8.7)
	21세	68 (14.4)
	22세	48 (10.1)
	23세	53 (11.2)
	24세	52 (11.0)
	25세	80 (16.9)
	26세	76 (16.1)
	27세	35 (7.4)
	28세	13 (2.7)
	29세	1 (0.2)
	30세	1 (0.2)
	31세	1 (0.2)
	계	473 (100)
출 신 지	대도시	293 (61.8)
	중·소도시	113 (23.8)
	농·어·광촌	68 (14.3)
	계	474 (100)
소속단체	공대	141 (29.7)
	자연대,이과대	63 (13.3)
	농과대,축산대	68 (14.3)
	인문대	30 (6.3)
	경영대,경상대,사회대	129 (27.2)
	법대,행정대,정치대	34 (7.2)
	기타	9 (2.0)
	계	474 (100)

어졌다. 질문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10-15분이었다.

질문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합하여 총 560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510부(91.8%) 중 부실기재된 36부를 제외시킨 474부(84.6%)를 이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의 분석

우선 남자 대학생의 친부에 대한 친밀도 지각과 친부의 부성역할 지각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표 IV-2〉 조사 대상자之父의 일반적 성격

특 성	내 용	빈 도(%)
父의 연령	49세 이하	55 (11.8)
	50~59세	333 (71.6)
	60세 이상	77 (16.6)
	계	465 (100)
父의 교육 수준	국졸 이하	63 (13.3)
	중·고졸	263 (55.7)
	대졸이상	146 (31.0)
	계	472 (100)
父의 직업	무직	13 (2.8)
	비숙련직	26 (5.7)
	판매직 및 숙련직	179 (38.9)
	사무직	119 (25.9)
	관리직	66 (14.3)
	교육관련 전문직	43 (9.3)
	비교육관련 전문직	13 (2.8)
	기타	1 (0.2)
	계	460 (100)

Pearson 상관계수를 구했다. 또한 남자 대학생의 친부에 대한 친밀도 지각과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간의 상관 관계와 남자 대학생의 친부의 부성역할 지각과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역시 Pearson 상관계수를 구했다.

V. 연구 결과 및 해석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분석, 처리된 결과를 연구 문제별로 살펴보기에 앞서, 부성역할 문항의 하위영역에 관한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려고 한다.

친부의 부성역할 영역과 자의 미래자기 부성역할 영역 모두 연구자가 분류한 부성역할 하위영역과 요인분석한 결과가 상당한 연관이 있어 원래 4개 영역으로 나누었던 것을 3개 영역으로 재분류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친부의 부성역할 영역은 3개 요인으로 나뉘어졌고, 자의 미래자기 부성역할 영역은 4개 요인으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친부의 부성역할 영

역의 3요인과 미래자기 부성역할 영역의 3, 4요인이 동일한 문항을 포괄하므로,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친부의 부성역할 영역과 자의 미래자기 부성역할 영역을 3개 요인으로 묶어 하위영역을 나누었으며, 역할내용 및 문항번호는 아래와 같다.

F₁, I₁ : 양육자 및 부양자 역할

문항번호 1 가족의 의,식,주에 불편이 없도록 적당한 수입을 갖는다.

문항번호 2 가정의 경제지출 중 교육비 지출을 중요한 항목에 넣는다.

문항번호 3 영양섭취, 운동 등과 같은 건강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F₂, I₂ : 기본적 훈육 및 가정과 사회의 문화전달 역할

문항번호 4 예의바르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도록 한다.

문항번호 5 행동에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구별해 주며 상과 벌을 철저히 한다

문항번호 9 아버지 자신이 공중도덕, 국민의 의무를 지켜 시민생활, 국민생활에 책임의식을 갖도록 한다.

문항번호 10 잊사람, 부모에 대한 예절, 효도를 강조하고 모범을 보이도록 한다.

문항번호 11 집안의 가풍 또는 가훈을 정하여 잘 지키고 유지하도록 한다.

F₃, I₃ : 가정의 화목조성 및 의논 상대자의 역할

문항번호 6 시사문제 또는 사회적 현안에 관심을 갖고 바른 시각을 갖도록 한다.

문항번호 7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교,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도록 돕는다

문항번호 8 고민거리가 있을 때 의논 상대자가 되어 준다.

문항번호 12 부모가 화목하며 자녀문제를 함께 의논한다.

문항번호 13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가정이 되도록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1. 연구문제 1의 결과

남자 대학생의 친부에 대한 친밀도 지각이 친부의 부성역할 지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가를 살펴 보려는 연구문제1의 결과로 Pearson의 상관계수는 아래와 같다.

〈표 V-1〉 친부에 대한 친밀도 지각과 친부의 부성역할 지각의 상관 관계

구 분	F	F ₁	F ₂	F ₃
친밀도 지각	0.612***	0.330***	0.451***	0.657***

*** p<.001 ** p<.01 * p<.05

F : 친부의 부성역할

친부에 대한 친밀도 지각과 부성역할 지각의 상관관계는, 0.1%의 유의수준에서 0.612의 상관계수로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인다. 그러므로 친부와 친밀하다고 지각하는 자일수록 친부가 부성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위 영역별로 볼 때 특히 F₁(가정의 화목조성 및 의논 상대자 역할 영역)이 0.1%의 유의수준에서 0.657로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며, F₂(양육자 및 부양자 역할 영역)은 0.330으로 가장 낮은 상관 관계를 나타낸다. 즉 친부와 친밀하다고 지각하는 자일수록 친부가 가정의 화목조성과 의논 상대자의 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父가 사회생활보다는 가정생활을 더 중시하고, 자녀에게 엄격하기보다는 친근하게 대해주는 아버지를 기대하고 있다는 김유진, 김기성(1979)의 연구결과와 관련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친부와 친밀하다고 느끼더라도,父가 양육자 및 부양자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느끼는 자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친부와 자간의 친밀감은,父가 가정의 화목을 조성하고 자의 의논상대자가 되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자가 지각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문제 2의 결과

남자 대학생의 친부에 대한 친밀도 지각이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가를 살펴보려는 연구문제2의 결과로 Pearson의 상관계수는 아래와 같다.

〈표 v-2〉 친부에 대한 친밀도 지각과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의 상관 관계

구 분	I	I ₁	I ₂	I ₃
친밀도 지각	0.209***	0.153***	0.241*	0.098***

*** p<.001 ** p<.01 * p<.05

I : 미래자기 부성역할

친부에 대한 친밀도 지각과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의 상관 관계는, 0.1%의 유의수준에서 0.209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며 비교적 낮기는 하지만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친부와 친밀할수록子是 미래자기 부성역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I₁(기본적 훈육 및 가정과 사회의 문화전달 역할 영역)가 5%의 유의수준에서 상관계수가 0.241로서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며, I₃(가정의 화목조성 및 의논 상대자 역할 영역)은 0.1%의 유의수준에서 0.098의 상관계수를 가짐으로써 가장 낮은 상관 관계를 보인다. 父와 친밀하다고 지각하는 자일수록 다른 역할에 비해 특히, 기본적 훈육 및 가정과 사회의 문화전달 역할을 나중 에 父가 되었을 때 잘 수행하리라고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3〉에서 子의 미래자기 부성역할 및 친부에 대한 친밀도 지각의 점수분포를 살펴 보면, 子의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은 친부에 대한 친밀도 지각 점수에 비해 대체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그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상관계수가 0.098인 I₃의 경우, 친부에 대한 친밀도 지각에 거의 관계없이 子의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은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할 수 있

〈표 v-3〉 子의 미래자기 부성역할 및 친밀도 지각의 점수 분포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子의 미래 자기 부성 역할 지각	I	474	4.298	0.441	2.2	5.0
	I ₁	474	4.210	0.523	1.0	5.0
	I ₂	469	4.119	0.598	1.0	5.0
	I ₃	472	4.474	0.468	2.6	5.0
친밀도 지각	474	3.015	0.650	1.0	4.8	

다. I₃(가정의 화목조성 및 의논 상대자의 역할 영역)은 그 평균 점수가 4.474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친밀도 지각과의 상관계수가 0.098로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친부에 대한 친밀도 지각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남자 대학생들이 그 역할 영역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상적인 아버지의 역할로 남녀 고등학생이 자녀와 자주 대화를 하는 것을 꼽고 있다는 이순렬(1986)의 연구결과와, 자녀가 생각하는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이란 자녀를 이해하고 대화를 자주하는 아버지가 가장 바람직한 아버지라고 한 박길현(1984)의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3. 연구문제 3의 결과

남자 대학생의 친부의 부성역할 지각이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가를 살펴 보려는 연구문제3의 결과로 Pearson의 상관계수는 〈표 IV-4〉와 같다.

친부의 부성역할 지각과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의 상관 관계는 0.1%의 유의수준에서 0.403의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친부가 부성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지각할수록 미래에 子가 父가 되었을 때 부성역할을 잘 수행하리라고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하위 영역별로 볼 때, F₂(기본적 훈육 및 가정과 사회의 문화전달 역할 영역)와 I₂(기본적 훈육 및 가정과 사회의 문화전달 역할 영역)의 상관계수가

〈표 V-4〉 친부의 부성역할 지각과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의 상관 관계

구 분	F	F ₁	F ₂	F ₃
I	0.403***	0.202***	0.405***	0.335***
I ₁	0.352***	0.306***	0.285***	0.301***
I ₂	0.392***	0.144***	0.437***	0.309***
I ₃	0.249***	0.093*	0.243***	0.225***

*** p<.001 ** p<.01 * p<.05

0.437로서 다른 영역에 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친부가 기본적 훈육 및 가정과 사회의 문화전달 역할을 잘 수행할수록 자가 미래에父가 되었을 때 기본적 훈육 및 가정과 사회의 문화전달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가족관계 중에서도 가치전달 효과가 뚜렷한 것은 부모-자녀 관계로서, 자녀에게 있어 부모는 최초의 관계이므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은 강력하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회적 태도, 신념, 가치 등을 학습한다(김경신, 1987)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Clausen(1968), Maccoby(1968) 등의 사회학습 이론가들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아버지됨의 혹은 사회적인 목표를 향한 동기를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목표나 가치를 전달해 준다(김경신, 1987에서 재인용)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간에는 가치에 있어서 높은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I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친부와 친밀하다고 지각하는 자일수록 친부가 부성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지각한다. 친부와 친밀하다고 지각하는 자일수록 친부가 특히 가정의 화목조성과 의는 상대자의 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지각한다. 이는 친부가 부성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가 필수적임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父가 가정의 화목조성과 의는 상대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자녀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상관관계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친부와 친밀하다고 지각하는 자일수록 미래에 子가 父가 되었을 때 부성역할을 잘 수행하리라고 지각한다. 하위영역 별로 보았을 때 기본적 훈육 및 가정과 사회의 문화전달 역할 영역은 친밀도 지각과 다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가정의 화목조성 및 의는 상대자 역할 영역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고 그 평균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친부에 대한 친밀도 지각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남자 대학생들이 가정의 화목조성 및 의는 상대자 역할 영역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 총점으로 보면, 친부와 친밀할수록 子는 미래자기 부성역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친부가 부성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지각할수록 미래에 子가 父가 되었을 때 부성역할을 잘 수행하리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부가 기본적 훈육 및 가정과 사회의 문화전달 역할을 잘 수행할수록 子가 미래에 父가 되었을 때 기본적 훈육 및 가정과 사회의 문화전달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고 지각한다. 따라서 부성역할 수행이 子의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부성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이 연구에 사용된 부성역할 및 친밀도에 관한 질문지는 표준화된 검사지가 아니고 관련 연구를 기초로 연구자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질문지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대구지역과 서울지역의 한정된 지역의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전국의 남자 대학생에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제한점이다. 그러므로 전국의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는 친부에 대한 친밀도와 친부의 부성역할 지각간에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음과 친부의 부성역할 지각과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 미래자기 부성역할 지각 뿐만 아니라 실제 자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부성역할 수행 정도까지 포괄한 종단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김경신 (1987). 부모와 대학생 자녀의 가치관과 가치전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5(3)」, 95-106
- 2) 김광웅 (1978).父子관계에 따른 남아의 인성특징에 관한 연구. 「아동연구」 3, 7-20
- 3) 김옥엽 (1982). 아버지의 역할과 자녀의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유진, 김기성 (1979). 청소년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 청소년 문제 연구소
- 5) 김재은 (1967). 한국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논집」 제10집, 157-17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 연구원.
- 6) 박길현 (1984). 아버지 역할에 대한 남자 고등학생의 의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신연식 (1982). 「부모교육」. 서울: 학문사.
- 8) 유안진 (198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정민사
- 9) _____ (1986). 「한국의 전통육아 방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10) _____ (1989). 「아동양육」. 서울: 문음사.
- 11) 유영주 (1980). 「가족 관계학」. 서울: 교문사.
- 12) _____ (1984). 「신가족 사회학」. 서울: 교문사.
- 13) 이순렬 (1986). 자녀 양육에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남녀 고등학생의 의식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이은순 (1974). 아버지 역할에 관한父子女간의 상관 연구 -고등학생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이은화, 김태련 (1972). 유아기 아동의 문화환경에 대한 기초 연구(II). 「논총」 제20집, 299-330,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 연구원.
- 16) 이정숙 (1979). 父親不在가 자녀의 성장에 끼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7(4)」, 75-93
- 17) 이주리 (1984). 부모 및 또래에 대개 아동이 지각하는 친밀도와 아동의 TV시청량의 관계 -도시 아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이희자, 정영숙 (1980).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녀의 성 및 출생순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8(2)」, 23-39
- 19) 최규순 (1991). 아버지와 아들, 두 세대간의 아버지 양육행동에 관한 비교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Bengston, V. L. & Cutler, N. (1976). Generations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Perspective on age groups and social Change. In R. Binstock and E. Shanas (eds.). *The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21) Chelune, G. J., Robison, J. T. & Kommor, M. J. (1984). A Cognitive interactional model of intimate relationships. In Valerian Derlega (eds.). *Communication, intimacy and close relationships*. London: Academic Press, Inc.
- 22) Kelly, H. H., Berschied, E., Christensen, A., Harvey, J. H., Huston, T. L., Levingger, G., McClintock, E., Peplau, L. A. & Peterson, D. R. (1983).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 23) Santrock, J. W. (1981). *Adolescence an introduction*. New York : Wm, C. Brown Company Publishers.
- 24) Troll, L. V. & Smith, J. (1976). Attachment through the life span: some questions about dyadic bonds among adults. *Human Development* 19, 156-170
- 25) Walker, A. J. & Thompson, L. (1983). Intimacy and intergenerational aid and contact among

- mothers and daught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ember, 841-849
- 26) Waring, E. M., Tillman, M. P., Frelick, L., Russell, L. & Weise, G. (1980). Concepts of intimacy in the general populatio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8, 471-474